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The Preferences for Elderly Housing Characteristics : Viewpoint of A Middle-Aged*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신영숙

Dept. of Home Management, Kon Kuk Univ.
professor : Shin, Young So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delineates the preferences of elderly housing characteristics among a middle-aged popul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n independent, random, age-stratified sample of house wiv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interview method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SAS statistics analysis program. The preferred way of living style and housing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Preferred housing characteristics were influenced by age, income, job and education. Education was the most powerful indicator for predicting the preferenc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 계층별 구조를 볼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1993)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평균 수명은 2000년에 72.7세로 예측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994년에는 5.5%, 2000년에는 6.8%, 2020년에는 12.5%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노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절대적 노령화'도 병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가족 구조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여 노부모와의 동거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중년층까지는 노년에 장남 부부와 동거하며 부양받는 형식의 전통적인 직계가족 부양 방식을 잠재적으로 원하고

* 본 연구는 1996년도 건국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있으나,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선호하는 사회풍조로 인하여 이러한 생각들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하여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다. 노인들이 희망하는 노인 주택 유형과 동거에 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노부부만 단독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 비율은 53.1%이며 노인 전용주택에 거주 희망 비율이 21.1%, 노인 전용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17.2%로서 총 90%정도의 노인들이 노인들끼리 독립하여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주택공사, 1993).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교육정도와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농촌보다 도시 거주노인의 경우 더욱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한국 사회보건원, 1990). 이러한 다양한 주택유형을 원하는 경향을 볼 때 부양 방법의 다양화에 못지않게 노인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주택유형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인구보건원(1989)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만의 노인 단독세대 가족은 전체 가족의 20.5%, 노인과 미혼 자녀의 2세대 핵가족은 23.6%, 노인 및 기혼자녀의 3세대 이상의 노인 가족은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핵가족 노인 세대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문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더욱 확산되어 2000년에는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고 노인들만 단독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도시 지역은 50%내외, 농촌 지역은 80%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노인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나 일본의 경우 '90년 현재 주택은 물론 건강, 정보 통신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총 민간 소비의 10%인 약 24조엔(한화 136조 원)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비중이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상업 광고의 22%는 노인을 위한 광고로서 노인층 소비자의 경제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노인 산업은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거, 의료, 금융, 레저 등 전 분야에 걸쳐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산업의 통칭으로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잠재력이 있는 분야가 노인 주택 분야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주택 개발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인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 거주자가 될 노인들의 주거지 행태와 요구, 선호사항들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노인 주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노년기를 하나의 고정된 주기로 보고 단계별 구분없이 일관된 결정을 내리거나 현재의 열악한 노인 주거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한 것,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주택의 변경이나 선호 경향을 통해 노인 주거의 요구를 파악한 것, 또한 노인 계획주거의 건축적 특성을 밝힌 것 또는 노인 계획주거 단지 특성에 관한 것 등으로 노인들의 주택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거시적 안목에서의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에 노인이 될 현재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주거지 특성 중 특히 주택과 지역사회의 시설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어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역점을 두고 파악하여 노인 주거환경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 1) 중년층의 경제관련 노후대책을 파악한다.
- 2) 중년층이 선호하는 노후 주택,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사회 시설을 파악한다.
- 3)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중년층이 선호하는 노인 주택 및 지역사회 특성에 차이를 규명한다.
- 4)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중년층이 선호하는 노후 지역사회 시설의 차이를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이 선호하는 거주환경

노인의 주거 유형을 의존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완전 자립생활이 가능한 독립 주거로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지역사회가 담당한다. 자립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는 집합 주거 형식도 들 수 있으며 이는 단독주택 보다 더 많은 서비스

가 가능하다. 두번째는 필요로 하는 보호 단계에 따라 개인적 보호주거, 독립성에 더 가치를 두나 관심과 원조를 필요로 하는 중간 주거, 숙련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간호 주거,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확대 보호시설 등으로 나뉘어 진다.

현재 중년 부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선호하는 주거환경은 81.1%가 부부끼리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은 도시근교의 일반 주거지역이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주거유형은 단독주택(82%)으로 나타났다(주택공사, 1993). 또한 공동주택 노인의 주거환경 계획에서 노인들은 노인전용 공동주거를 가장 선호하며 중간 보호시설인 낮동안의 보호시설(daycare center) 등 다목적적으로 노인 거주환경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고성룡, 1990).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도시 거주 노인으로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생활 수준이 높고 건강할 수록 오히려 도심 속의 일반 주거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서 각 노인의 배경 변인에 따라 다양한 주거지 특성을 원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또한 노후에 희망하는 주택 유형도 단독 주택 53.1%, 노인 전용주택 21.1%, 노인 전용 아파트 17.1% 등 노인들 끼리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으나 배우자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단독 주택이나 소규모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1993).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집합주택 즉 저층이나 고층 아파트 계획시 혼자 사는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노인을 위한 계획 주거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층은 혼자 살면서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가장 높고 부부가 동거하면서 건강할수록 완전 자립주택에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은퇴 후 선호하는 거주 지역과 지역사회의 크기 및 위치에 대한 연구에서(Malroux, 1992) 부유한 층은 여가시설에 큰 관심을 보였고 생활비나 유지 관리비의 저렴성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 역시 여가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저렴한 생활비 및

유지비, 의료시설이나 가족과의 근접성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노후 대책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의 상관성 등을 조사한 연구에서(Junk, 1990; Makela, 1989; Tripple, 1990) 연령과 희망 의료 시설의 수준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으나 소득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삶에서 요구사항을 우선 순위 별로 보면(차미란, 1984) 첫째로 원하고 있는 것은 소득원 조로서 주택 금융, 경로우대제도의 확대, 연금 및 공적 부조의 확대등을 들수 있다.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으로서 교통수단에의 근접성 및 일상 생활자원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병원의 근접성 및 필요한 의료장비의 확보등이 문제가 된다. 네 번째의 요구사항은 집안 일, 조리 및 쇼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섯째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요구로서 같은 연령층 사람들과의 교제 및 근접 거주, 사회적 교류의 촉진 등을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상호작용 및 바람직한 근린에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2. 노인의 주요구 및 주거 만족도

노인의 주거환경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연령, 문화환경, 교육수준, 경험과 노화과정 등에 따른 개인적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집합주택 거주 노인과 비집합 주택 거주 노인의 주거 만족도는 별 차이가 없으며 인구학적 특성과 주 요구에 따른 주거특성과의 관계만이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herman, 1972). 반면 자립생활 노인과 노인 집합주거에 사는 노인들의 이웃 상호접촉에는 차이가 없으나 자립주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거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 1970). 또한 노인층이 한 지역내에 흩어져 살기보다 한 단지내에서 거주하여 지역적인 근접성을 갖는 것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과 만족감이 더 증가되며

(Rosow, 1967; Lawton, 1975) 노인층 끼리만의 거주 보다는 젊은 층과의 거주가 노인들의 생활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Verady, 1984).

노인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이동하기를 싫어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90%이상은 이주를 안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은 잠시 머무는 장소라기보다는 안정을 갖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완전한 가정이어야한다 (Green, 1975). 이동경향의 감소로 인해 지역사회 시설이나 여가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지면 건물의 내부에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주택의 내부 시설에 관해서도 노인들은 같은 활동을 할 때 더 젊은 층보다 더 많은 공간 면적을 필요로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간의 원활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구미 등지에서 노인주택 유형으로 원룸 평면이 선호되고 있으나 노인들 역시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안 좋아하므로 원룸으로 거실에서 모든 공간이 보여지는 평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reen, 1975). 이는 우리나라에서 원룸주택이 젊은 층은 물론이고 가족구성이 단순해지는 노인 세대에도 바람직한 주거유형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주택공사, 1993)과 대치된다.

III. 연구 방법

본 논문은 곧 노년 시기를 맞이하게 될 중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선호하게 될 노인 주택과 지역사회 특성을 살펴 그들의 노후 주거 환경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조사 대상의 선정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의 선정방법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의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방법을 택하여 1996년 7월에 1차 예비 조사를 하였고 결과를 보완하여 11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중년층으로 한 것은 현재 노인들 보다 주거경험이 풍부하고 이상적인 주거유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노인 주거환경의 선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층은 생활에 여유를 가진 계층으로서 생활양식의 다양화를 통해 향후 그들의 노년기 주택에 대한 희망사항들을 갖고 있는 층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부들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남편들보다 평균 수명이 길며 주택내에서 거주기간이 더 길고 부부가 동거할 때나 혼자서 살 때에 주택 결정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으로서 노후 선호주택에 대한 실질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시에 주부의 단독 의견보다는 부부 공동의 의견에 대한 응답을 부탁하였다. 수도권 전역에 걸쳐 총 250부의 설문지를 조사원을 통해 배부하였고 배부된 설문지 중 최종 131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조사내용은 독립변인으로는 학력, 연령, 월소득, 남편의 직업과 현 거주 주택유형을 조사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노후 경제대책 현황, 노후의 바람직한 주거관련 환경, 거주방식과 거주주택의 특성, 주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지역사회 특성 및 선호시설 등의 항목을 선정하여 독립, 종속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AS-PC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독립변인과 노후의 주거지 특성과는 t 및 F 검증을 통해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고 Duncan test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배경 변인에 관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배경: 연령은 40대가 많았고 학력은 대졸, 월소득은 200~300만원대가 많이 표집되

<표 1> 조사 대상지의 배경 변인

(N=131)

| 배경변인 | 내 용 | 빈 도 | 백분율 |
|-------------------|----------|-----|------|
| 연령 | 40세~44세 | 47 | 35.9 |
| | 45세~49세 | 41 | 31.3 |
| | 50세~63세 | 43 | 32.8 |
| 학력 | 고졸이하 | 47 | 35.9 |
| | 대졸이상 | 84 | 64.1 |
| 소득 | 200만원 미만 | 47 | 35.9 |
| | 300만원 미만 | 41 | 31.3 |
| | 400만원 미만 | 21 | 16.0 |
| | 400만원 이상 | 22 | 16.8 |
| 남편 직업* (N=118) | 자영업 | 49 | 41.5 |
| | 전문직 | 31 | 26.3 |
| | 행정 관리직 | 22 | 18.6 |
| | 6급이하 공무원 | 8 | 6.8 |
| | 기술직 | 8 | 6.8 |
| 현 주거유형 | 단독주택 | 30 | 22.9 |
| | 고층아파트 | 49 | 37.4 |
| | 저층아파트 | 25 | 19.0 |
| | 다세대/연립 | 27 | 20.6 |

었다. 또한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많이 포함 되어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층과 기술직은 각 6.8%로서 두 계층을 합하기에는 동질성이 없고, 분리하여 분석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율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고층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단독 주택, 다세대/연립, 저층아파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윤곽을 보면 일반 중산층보다는 월 소득이나 직업계층을 볼 때 약간 상위권으로 표집이 되어¹⁾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주거의 선호 형태를 위한 조사 대상으로서 주거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절한 표집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2. 노후 대책

중년층의 노후 대책으로는 노후의 경제생활 대책, 희망하는 노후 거주 환경 및 건강상태별 선호 거주

형태에 관해 살펴보았다.

1) 노후의 생활 대책

현재 노후의 경제대책을 세우고 있는 대상은 전체의 82.4%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노후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개인저축이며(약 64%), 연금(59%), 보험금(37%), 부동산의 임대수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사람도 11.5%가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와 별거를 원하며 그때에도 노후대책으로서 자녀로 부터의 보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낮아서(6.9%) 중년층들은 자녀로 부터의 도움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각 가정이 노후대책으로 대비한 방법은 평균 2.4 종류로 나타났으며 이를 소득별로 분류해 보면 200만원 미만은 평균 1.92 종류이며 주로 개인저축과

<표 2> 노후의 생활 대책

(N=131)

| 유 목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
| 현재 노후대책 실시 여부 | 네 | 108 | 82.4 |
| | 아니오 | 23 | 17.6 |
| 기대되는 노후의 수입원 (순위별)* | 1 개인 저축 | 84 | 64.1 |
| | 2 연 금 | 77 | 58.8 |
| | 3 보험금 | 49 | 37.4 |
| | 4 부동산 임대수입 | 33 | 25.2 |
| | 5 자녀와 동거 | 15 | 11.5 |
| | 6 부동산 매각 | 13 | 9.9 |
| | 7 증권, 주식수입 | 12 | 9.2 |
| | 8 재 취업 | 11 | 8.4 |
| | 9 지방이나 정부보조 | 10 | 7.6 |
| | 10 자녀로 부터 보조 | 9 | 6.9 |

*노후대책으로 행하는 항목에 복수응답이므로 100%를 초과한다.

1) 도시 근로자의 월소득 평균이 170만원(1994년 현재)이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은 전체 근로자의 25.7%에 불과하다.(한국사회지표, 통계청, 1995)

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300만원 미만은 평균 2.12 종류, 400만원 미만은 2.54 종류, 400만원 이상은 3.0 종류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주로 개인 저축과 연금을 노후 수입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저축보다 연금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증권, 주식 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등에 더 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희망하는 노후 거주 환경

선호하는 노인 주거생활 방식은 고정수입이 없어 지므로 절약을 위해 퇴직 전에 살던 집보다 규모를 줄여서 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55.4%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그러나 퇴직 전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방식을 변경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34.5%로서 90%이상의 사람들이 노후에도 자신이 살아오던 생활양식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자녀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특히 자녀들과의 동거를 원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노후 생활대책으로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원하지 않는 것과 상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호하는 주택의 위치는 도시 근교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층이 거의 63%에 달하고 있어서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자녀와의 근거리 거주 및 전원생활의 한가함을 동시에 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종래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결과이다(박태환 1994). 그 다음으로는 고향이나 농촌에서의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주택 유형도 거의 과반수가 단독주택을 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층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는 층도 30.5%나 된다.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유형(표 1참조)에서 고층 아파트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과 대조 되는 것으로 앞으로 미래의 노인 주거로서 고층 아파트나 원룸 주택이 권장되고 있으나(주택공사, 1990) 본 연구 결과로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주택으로 고층아파트나 원룸주택이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 주거유형에 대해 원룸 아파트 등

<표 3> 노후의 주거관련 선호 사항

(N=131)

| 주거관련사항 | 조 사 내 용 | 빈도 | 백분율 |
|-------------|-----------------------|----|------|
| 선호 생활 방식 | 퇴직전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 | 46 | 34.5 |
| | 퇴직 전보다 규모를 줄여서 이사 | 72 | 55.4 |
| | 자녀와 살기 위해 집의 규모를 더 늘림 | 13 | 10.0 |
| 선호하는 주택의 위치 | 대 도시 | 10 | 7.6 |
| | 도시 근교 | 82 | 62.6 |
| | 중·소도시 | 9 | 6.9 |
| | 고향(농촌) | 25 | 19.1 |
| 선호하는 주택유형 | 휴양지 | 5 | 3.8 |
| | 단독 주택 | 65 | 49.5 |
| | 15층이상의 고층 아파트 | 7 | 5.7 |
| |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 40 | 30.5 |
| | 다세대/연립 주택 | 12 | 8.6 |
| 선호 주택 면적 | 원룸 아파트 | 7 | 5.7 |
| | 20평 이하 | 14 | 10.8 |
| | 20평 ~ 30평 미만 | 63 | 48.5 |
| | 30평 ~ 40평 미만 | 35 | 26.5 |
| | 40평 이상 | 19 | 14.6 |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해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 면적도 20평부터 30평 미만을 원하고 있는 층이 48.5%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6.5%는 30평에서 40평형을 원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생활상의 경제력과 질적 삶에 대한 욕구를 엿볼 수 있다.

3) 건강상태별 선호 거주형태

노후에 건강한 경우는 부부가 동거할 때(90.1%)나 혼자 거주 할 경우에도(68.7%) 자녀와 별거를 원하고 있다(표 4).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는 경향은 만 의존단계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났고(37.4%) 오히려 완전 의존단계에서는 자녀와 동거하기(27.5%)보다 별거하여 자신의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34.4%) 노인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36.1%)을 원하고 있었다.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의 거주형

<표 4> 건강상태별 선호 거주 형태

(N = 131)

| | 노후의 거주형태 | 부부 동거, 건강시 | 홀로 거주, 건강시 | 반 의존 단계 | 완전 의존 단계 |
|---|--|------------|------------|-----------|-----------|
| 1 | 자녀와 동거 | 13(9.9) | 41 (31.3) | 49 (37.4) | 36 (27.5) |
| | 자녀와 별거 | 118(90.1) | 90 (68.7) | 82 (62.6) | 95 (72.5) |
| 2 | 1 본인의 집에서 완전 자립 생활 | 105(80.2) | 48 (36.6) | | |
| | 2 시설이 완비된 노인 단지 | 13 (9.9) | 24 (18.3) | 23 (17.6) | 21 (16.3) |
| | 3 유료 노인홈 | | 6 (4.6) | 19 (14.5) | 26 (19.8) |
| | 4 본인의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 받음 | | 3 (2.3) | 33 (25.2) | 45 (34.4) |
| | 5 낮에는 노인보호 프로그램(데이케어센터) 참석, 밤에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 | | 9 (6.9) | 7 (5.3) | 3 (2.3) |

* 표의 구성 : 자녀와 별거시 건강상태에 따른 거주형태의 각 %는 각 항목별 %의 총계이다.

태 중 부부나 한쪽이 건강한 경우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80.2%) 반 의존 단계, 완전의존단계에서도 본인의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가장 희망하고 있어서 역시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되었을 때 자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그 경우에도 자녀와 독립하여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층들의 주거 욕구는 특히 지속적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 경우에 시설이 완비된 노인 단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도(18.3%) 향후 우리의 노인 주택에 대한 대처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반 의존단계에서도 시설이 좋은 노인 단지에 들어가기를 선호하는 비율이 홀로되어 건강할 때와 거의 비슷한 것은 역시 노인들의 자립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완전 의존단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증가하여 자녀와 동거는 오히려 줄고 유료노인홈에 가거나 자신의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노인의 노후 대비가 더 중요하게 인식될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독립성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하여 유료노인홈의 시설 설비 및 자신의 집에서의 생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처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를 원하는 층들도 눈여겨 보아야 하며 외국의 경우와 같이 노인이 자원 봉사자들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건강할 때는 오히려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노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의 운영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노후에 선호하는 주거지 특성

노후에 선호하는 주거지 특성으로는 주택특성, 주택 내부 선호공간 및 공간의 분위기와 지역사회 특성 및 시설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주택의 특성

주택의 특성 중에서 노후의 생활 양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11개의 문항에 대해 리커트트의 5점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가장 선호도가 큰 5점부터 가장 낮은 1점까지 중 평균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순위로 정리하면 1순위는 난방시설이 있고 주택 시설, 설비의 편리성, 유지관리가 쉬울 것, 홈 오토메이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이를 볼 때 중년층의 노후 선호 주택은 장년 이하층들보다 신체적인 쾌적성 및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도시 거주자들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항들인 주택의 외

〈표 5〉 노후 선호 주택 특성에 대한 순위 및 차이검증

| 선호 주택특성(순위별) | 독립변인 | | 연령 | 학력 | 직업 | 월소득 |
|----------------|------|------|-------|--------------------------------|------------------------------------|---|
| | M | SD | ANOVA | t-test | ANOVA | ANOVA |
| 1 난방 시설 | 4.78 | 0.94 | | | | |
| 2 주택시설 설비의 편리성 | 4.66 | 0.94 | | | | 5 4.91 a* 4 4.81 ab 2 4.61 ab 3 4.54 b |
| 3 유지관리 용이 | 4.56 | 0.95 | | | | |
| 4 홈 오토메이션 | 4.09 | 0.94 | | | | |
| 5 내부 수납공간량 | 3.76 | 0.97 | | | | |
| 6 각 실 배치 방법 | 3.67 | 0.98 | | | | |
| 7 주택의 크기 | 3.56 | 0.92 | | | | |
| 8 주택 외부 디자인 | 3.54 | 0.92 | | | 행 3.91 a* 자 3.50 ab 전 3.40 b | |
| 9 각 실의 크기 | 3.42 | 1.04 | | | | 5 3.95 a** 4 3.42 b 2 3.35 b 3 3.20 b |
| 10 방(침실)의 갯수 | 3.28 | 0.09 | | | | |
| 11 공간의 가변성 | 3.25 | 0.96 | | t = 0.93** 대 3.33 고 3.18 | | 3 3.51 a* 2 3.29 ab 5 3.05 ab 4 2.91 b |

* p<.1, ** p<.05, *** p<.001

- 연 령 : 2=44세 이하, 3=45세 ~ 49세, 4=50세 이상.
- 학 령 : 대=대졸이상, 고=고졸이하.
- 직 업 : 행=행정관리직, 자=자영업, 전=전문직
- 월소득 : 5=400만원이상, 4=400만원미만, 3=300만원미만, 2=200만원미만

부 디자인이나 각 실의 크기나 방의 갯수 및 공간의 가변성 여부 등은 중년층의 노후 선호를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각 항목에 대하여 연령, 학력, 직업, 월 소득 등 독립변인들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표 5〉, 연령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월소득이 높은 층에서 주택의 시설 설비의 편리성면과 각 실의 크기 및 공간의 가변성에서 비례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행정직의 사람들이 주택의 외부디자인에 더 큰 선호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의 학력과 월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층에서 공

간의 가변성에 대하여 높은 평균점이 나타났다. 이는 월소득과 주택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역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월소득이 낮은 층에서 공간의 가변성을 선호하는 것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공간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평면을 원하기보다 현 거주공간보다 넓은 공간을 원하고 있는 것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기할 수 있는 공간의 가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생활의 변화에 따른 공간 형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거나 미래적 생활양식의 지향에는

〈표 6〉 노후 주택에서 중요하게 선호되는 공간

| 공간의 중요도(순위별) | | 독립변인 | | 연령 | 학력 | 직업 | 월소득 |
|--------------|--|------|------|-----------|--------|-------|-----------|
| | | M | SD | ANOVA | t-test | ANOVA | ANOVA |
| 1 | 거실 | 4.64 | 0.54 | 4 4.74 a* | | | |
| | | | | 3 4.68 ab | | | |
| | | | | 2 4.47 b | | | |
| 2 | 안방(가족실) | 4.50 | 0.57 | 4 4.67 a* | | | 5 4.86 a* |
| | | | | 3 4.58 ab | | | 4 4.57 ab |
| | | | | 2 4.38 b | | | 3 4.53 b |
| | | | | | | | 2 4.36 b |
| 3 | 부엌과 식당이 한 공간 내에 있음(DK) | 4.31 | 0.76 | | | | |
| 4 | 부부침실 | 4.11 | 0.76 | | | | |
| 5 | 손님방 | 4.08 | 0.65 | | | | |
| 6 | 거실, 식당, 부엌이 한 공간 내에 있음(LDK) | 3.51 | 1.19 | 4 3.91 a* | | | |
| | | | | 3 3.44 ab | | | |
| | | | | 2 3.37 b | | | |
| 7 | 취미생활 공간 | 3.21 | 1.01 | | | | |
| 8 | 내부공간 전체가 단일 공간으로 된 집 (one-room system) | 2.63 | 1.09 | 전 3.16 a* | | | |
| | | | | 행 2.46 ab | | | |
| | | | | 자 2.36 b | | | |

* p<.1, ** p<.05, *** p<.001

- 연 령 : 2=44세이하, 3=45~49세, 4=50세이상
- 학 력 : 대=대졸이상, 고=고졸이하
- 직 업 : 행=행정관리, 전=전문직 자=자영업
- 월소득 : 5=400만원이상, 4=400만원미만, 3=300만원미만, 2=200만원미만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각 실의 크기에 대한 선호는 소득과 비례하여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의 갯수에는 평균점이 중간 수준으로써 노후의 주택공간 사용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2) 노후주택에서 중요하게 선호되는 공간

노후에 주택 내 공간 중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리커트트의 5점척으로 조사하였다. 평균의 차이에 따라 순위별로 중요한 공간을 살펴보면 거실, 안방, DK, 부부침실, 손님방, LDK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간의 순위와 평균점을 살펴 볼 때 미래 주거의 생활상으

로 선호 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엌이 거실과 같은 향으로 계획되고 식당과도 한 평면 내에 있는 형태(LDK) 보다는 현재와 큰 차이 없이 부엌과 식당이 한 공간 내에 있는 것(DK)을 더욱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 주거유형으로 부엌이 더욱 부각되어 거실과 같은 향으로 나란히 배치 되거나 식당과 함께 3개의 공간이 한 평면화 되는 것에 아직은 선호가 높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침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도 확실히 가족실로서의 안방이나 공동 영역으로의 거실과 차별화된 사적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래 주택의 새로운 선호 형태로서 노인들의 여가 시간이 길어지고 친구, 친척, 동호인들과의 교류를 위해 손님을 위한 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미래 주택의 선호 사항으로 예측되고 있는 취미생활 공간이나 원룸하우스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 항목들에 대해 독립변인과의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거실과 안방 및 LDK평면에 대해서는 50세 이상의 연령층들이 44세 이하의 연령층 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중년층이라도 노인 세대에 더 가까운 사람들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의 주택공간에서 중요시 여기는 공간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차이가 나타난 것은 행정직이나 전문직의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다 가변형 평면이나 원룸 주택에 대해 더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소득으로 볼 때 400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안방을 더욱 중요시 하였다.

한편 중년층의 노후 선호하는 주택의 분위기를 조사하였는데 내부의 평면 구조가 한옥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것에는 5점척에서 3.44점을 나타내었으며 소득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만원 미만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를 나타내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실에서 의자식이 아닌 좌식생활을 선호하는 경우는 3.22점으로 별반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변인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취향을 들어내는 항목인 한옥같은 분위기나 가변형 평면에 대해서는 소득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3) 노후의 선호 지역사회 특성

현재 노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의 환경특성에 관한 관련 문헌과 기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후의 선호 지역사회 특성을 분류하여 그 선호도를 리커트트의 5점척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독립변인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7).

전체 23항목의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4점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이 12개이고 3.5점 이상은 9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항목도 3.25점으로서 비교적 고른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

이 4.03으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아주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선호도의 점수분포를 볼 때 5점척에서 3점인 그저 그렇다의 의미는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3.5점 이상일 때를 확실한 선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미래 지역사회 특성 중 선호도가 높은 것을 순위 별로 살펴보면 역시 노후의 건강상의 염려로 인해 의료시설이 잘된 곳이 첫번째로 나타났고 대중 교통의 발달, 조망이 좋은 곳, 개인 생활의 보장과 함께 생활비가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생활상의 서비스를 바라고 있어서 노후에 질적인 삶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이하의 재고용이 가능한 곳이나 젊은 층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 들은 선호순위도 낮은 순위이나 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Verady, 1984)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호도가 고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노후의 지역사회 특성에 대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으며 노후에 적극적인 생활환경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사항으로는 신사회, 신정보에 대한 교육의 기회에 대한 선호도(3.96점)에 비해 재취업을 위한 기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아서(3.46점) 아직 노후대책에 대한 능동적대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각 독립변인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4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오히려 의료시설과 가족, 친지와의 접촉이나 신사회 최신 정보에 대한 접촉의 기회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다른 연령층 보다 더욱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미래 노인 주거환경이 더욱 다양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학력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이 의료시설 및 개인생활의 보장, 신정보에의 접촉 기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에서는 중전의 주택공간의 선호에서와 같이 자영업보다는 행정직이나 전문직의 사람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월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월소득이 높은 층들이 조망이 좋은 곳, 대규모 쇼핑센터, 사교적 활동이 많은

<표 7> 노후의 선호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 특성(순위별) | | 독립변인 | | 연령 | 학력 | 직업 | 월소득 |
|--------------|-------------------------|------|------|-------------------------------------|-------------------------------|------------------------------------|--|
| | | M | SD | ANOVA | t-test | ANOVA | ANOVA |
| 1 | 의료시설의 완비 | 4.73 | 0.61 | 2 4.83 a* 3 4.82 a 4 4.54 b | t=1.28*** 대 4.79 고 4.62 | | |
| 2 | 대중교통의 발달 | 4.60 | 0.61 | | | 3 4.18 a* 1 4.61 ab 2 4.43 b | 4 4.81 a** 3 4.70 a 2 4.55 ab 5 4.31 b |
| 3 | 조망이 좋은 곳 | 4.50 | 0.75 | | | | 5 4.72 a* 4 4.61 ab 3 4.55 ab 2 4.28 b |
| 4 | 개인생활이 보장 되는 곳 | 4.45 | 0.77 | | t=2.15** 대 4.56 고 4.23 | | |
| 5 | 전체 생활비가 저렴한 곳 | 4.36 | 0.75 | | | | 3 4.68 a** 2 4.40 ab 4 4.14 bc 5 3.90 c |
| 6 | 다양한 생활 서비스 가능 | 4.33 | 0.71 | | | | |
| 7 | 차, 아이들 소음 없는 곳 | 4.32 | 0.84 | | | | |
| 8 | 가족, 친지들과 쉽게 접촉 | 4.31 | 0.79 | 3 4.47 a** 2 4.40 ab 4 4.07 b | | | |
| 9 | 단지내 관리비 저렴 | 4.24 | 0.86 | | | | 3 4.46 a** 2 4.27 a 4 4.23 a 5 3.77 b |
| 10 | 동년배와 만날 수 있는 기회 | 4.16 | 0.84 | | | | |
| 11 | 오락, 여가시설 발달된 곳 | 4.14 | 0.92 | 2 4.40 a* 4 4.04 ab 3 3.94 b | | | |
| 12 | 이웃의 동질성 | 4.14 | 0.78 | | | | |
| 13 | 신사회, 신정보에 대한 교육의 기회 | 3.96 | 0.90 | 2 4.21 a** 4 3.88 ab 3 3.71 b | t=2.21** 대 4.09 고 3.68 | | |
| 14 | 동네의 공동체 의식이 높은 곳 | 3.92 | 0.88 | | | 전4.22 a* 행4.04 ab 자3.72 b | |
| 15 | 건강수준에 따른 다단계 보호주택 예비된 곳 | 3.88 | 0.99 | | | | |

| 지역사회 특성(순위별) | | 독립변인 | | 연령 | 학력 | 직업 | 월소득 |
|--------------|---------------|------|------|-------------------------------------|--------|----------------------------------|--|
| | | M | SD | ANOVA | t-test | ANOVA | ANOVA |
| 16 | 대 규모의 쇼핑 센터 | 3.82 | 0.95 | 2 4.02 a** 4 3.90 a 3 3.48 b | | | 4 4.10 a** 5 4.09 a 3 3.85 ab 2 3.55 b |
| 17 | 도서관 | 3.72 | 0.94 | 2 3.95 a* 4 3.66 ab 3 3.48 b | | 전4.09 a** 행3.95 ab 자3.55 b | |
| 18 | 종교활동 위한 예배장소 | 3.68 | 1.24 | | | | |
| 19 | 사교적 활동이 많은 곳 | 3.68 | 1.03 | 2 3.96 a** 4 3.73 ab 3 3.33 b | | | 4 4.19 a** 5 3.84 ab 2 3.55 b 3 3.46 b |
| 20 | 식사배달 서비스의 다양 | 3.60 | 1.03 | | | | |
| 21 | 자원 봉사자로 일할 기회 | 3.54 | 1.03 | | | | 2 3.78 a** 3 3.70 a 4 3.33 ab 5 2.90 b |
| 22 | 재 고용 가능한 곳 | 3.46 | 1.13 | 2 3.78 a** 3 3.35 ab 4 3.21 b | | | 2 3.86 a** 3 3.51 ab 4 3.23 bc 5 2.77 c |
| 23 | 젊은 층들과 어울릴 기회 | 3.25 | 0.92 | | | 전3.48 a* 행3.36 ab 자3.00 b | |

* p<.1, ** p<.05, *** p<.001

- 연 령 : 2=44세이하, 3=45~49세, 4=50세이상
- 학 령 : 대=대졸이상, 고=고졸이하
- 직 업 : 행=행정관리, 전=전문직 자=자영업
- 월소득 : 5=400만원이상, 4=400만원미만, 3=300만원미만, 2=200만원미만

곳 등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층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일할 기회나 재고용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후 생활보다는 생활을 즐기는 노후를 희망하고 있으며 노후에도 일을 한다는 것에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사료된다.

4) 노후의 거주 동네에 설치 희망 시설

모두 33개의 지역사회 시설 중 노후에 거주하는

동네에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8> 산책로가 가장 우선적이며 약국, 근린공원, 버스 정류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교육을 위한 문화센터와 노인들의 질적 삶을 위한 노인 복지회관, 주차장을 선호하는 것도 자동차 문화의 연장 선에서 현재 노인 보다 미래 노인의 삶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전체적으로 희망 시설의 윤곽을 보면 현 중년층의 노후 생활상의 다양함을 예견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3.5점 이상을 확실한 선호의 기준으로 볼 때 빨래방, 양품점, 비디오가게등

<표 8> 노후의 거주 동네에 설치 희망시설

| 동네에 희망시설(순위별) | | 독립변인 | | 연령 | 학력 | 직업 | 월소득 |
|---------------|-------------|------|-------|-------------------------------------|-------------------------------|------------------------------------|--|
| | | M | SD | ANOVA | t-test | ANOVA | ANOVA |
| 1 | 산책로 | 4.66 | 0.044 | | | | |
| 2 | 약국 | 4.58 | 0.049 | | | | |
| 3 | 근린공원 | 4.49 | 0.065 | 2 4.66 a* 4 4.53 ab 3 4.27 b | | | |
| 4 | 버스 정류장 | 4.35 | 0.071 | | | | 4 4.61 a* 3 4.43 ab 2 4.33 ab 5 4.00 b |
| 5 | 문화센터(재교육) | 4.33 | 0.069 | 2 4.48 a** 3 4.41 a 4 4.07 b | | | |
| 6 | 노인복지 회관 | 4.23 | 0.079 | | | | |
| 7 | 주차장 | 4.20 | 0.080 | | t=2.60** 대 4.35 고 3.91 | 행4.59 a** 전4.25 ab 자4.02 b | |
| 8 | 이발소/미장원 | 4.04 | 0.070 | | | | |
| 9 | 공중목욕탕 | 4.01 | 0.080 | | | | |
| 10 | 스포츠센터 | 4.00 | 0.086 | 2 4.29 a*** 4 4.11 a 3 3.51 b | | | 4 4.33 a** 5 4.31 a 3 4.00 ab 2 3.68 |
| 11 | 우체국 | 3.99 | 0.071 | | | | |
| 12 | 원예 화단 | 3.93 | 0.080 | | | | |
| 13 | 도서관 | 3.89 | 0.084 | 2 4.21 a** | 4 3.88 ab | 3 3.53 b | |
| 14 | 서점 | 3.80 | 0.084 | 2 4.06 a** | 4 3.76 ab | 3 3.51 b | |
| 15 | 채소밭 | 3.79 | 0.082 | | | | 2 4.08 a* 3 3.78 ab 4 3.52 b 5 3.45 b |
| 16 | 영화관, 연극/공연장 | 3.78 | 0.081 | | | | |
| 17 | 재래시장 | 3.75 | 0.077 | | | | 3 4.02 a*** 2 3.99 a 4 3.57 a 5 3.09 b |
| 18 | 한국음식점 | 3.71 | 0.114 | | | 행 4.13 a* 전 3.90 ab 자 3.51 b | 5 4.22 a** 3 3.85 ab 4 3.76 ab 2 3.33 b |
| 19 | 자원봉사장소 | 3.70 | 0.084 | 2 3.95 a* 3 3.59 ab 4 3.52 b | t=1.54 ** 대 3.80 고 3.51 | | |

| 동네에 희망시설(순위별) | | 독립변인 | | 연령 | 학력 | 직업 | 월소득 |
|---------------|-----------|------|-------|----------------------------------|------------------------------|------------------------------------|--|
| | | M | SD | | | | |
| 20 | 노인정 | 3.67 | 0.092 | | | | |
| 21 | 교회 | 3.66 | 0.114 | | | | |
| 22 | 반찬가게 | 3.62 | 0.095 | 2.391 a** 4.361 ab 3.328 b | | | 5.422 a** 3.385 ab 4.376 ab 2.333 b |
| 23 | 24시간 편의점 | 3.50 | 0.088 | 4.369 a* 2.357 ab 3.322 b | | | |
| 24 | 빨래방 | 3.40 | 0.092 | | | | |
| 25 | 양품점 | 3.31 | 0.079 | | | | |
| 26 | 비디오가게 | 3.13 | 0.096 | | | | |
| 27 | 양식 레스토랑 | 2.99 | 0.086 | | | | |
| 28 | 커피전문점 | 2.95 | 0.089 | | | | |
| 29 | 노래방 | 2.90 | 0.076 | | t=1.12** 대 2.96 고 2.80 | | |
| 30 | 골프연습장 | 2.89 | 0.113 | 4.321 a* 2.289 ab 3.253 b | | | 5.386 a*** 4.300 b 3.280 b 2.244 b |
| 31 | 피자, 햄버거가게 | 2.72 | 0.085 | | | | |
| 32 | 기원 | 2.68 | 0.087 | | t=1.19** 대 2.75 고 2.55 | | |
| 33 | 유흥장 | 2.33 | 0.094 | | t=1.54** 대 3.80 고 3.51 | 전 2.67 a** 자 2.12 b 행 2.09 b | |

* p<.1, ** p<.05, *** p<.001

- 연 령 : 2=44세이하, 3=45-49세, 4=50세이상
- 학 령 : 대=대졸이상, 고=고졸이하
- 직 업 : 행=행정관리, 전=전문직, 자=자영업
- 월소득 : 5=400만원이상, 4=400만원미만, 3=300만원미만, 2=200만원미만

24위부터는 선호도가 낮으며 전통적으로 노인의 소일거리이었던 기원에 대한 선호가 아주 떨어지는 것도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일거리 변화가 있을 것을 예견하게 한다.

반면 스포츠 센터, 원예화단, 도서관, 서점, 체소밭, 영화 연구관 등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노인의 여가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체로 44세이하의 연령 집단이 근린공원,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도서관, 서점 등에서 각 시설들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은 노후대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는 좀더 적극적인 노후 대책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Malroux, 1990) 또한 선호 지역사회 특성에서도 입증되고 있다(표 7참조). 학력

에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주차장, 자원 봉사 장소, 노래방, 기원, 유흥장 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직 또는 전문직의 직업계층들이 유의차가 난 항목에서 더욱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월소득에서는 버스정류장, 스포츠센터, 한국음식점, 반찬가게,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은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채소밭이나 재래시장에 대한 선호는 소득과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골프 연습장은 전체 선호도에서는 떨어지나 소득이 높은 층과 연령이 높은 층에서 선호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도 젊은 사람의 운동이라기 보다 연령이 높고 부유한 층의 운동인 것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노인들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로 생활설비 시설, 오락 및 여가 시설, 의료시설들의 순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력, 직업, 월소득 및 성별의 네가지 요인 중 어느 요인이 선호 주택특성이나 지역사회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원 분산분석(4way-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특성에 대하여 학력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F=8.40, p<.05, \eta^2=0.23$).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현 중년층의 노후 대책과 선호 주거지 환경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노후대책

80% 이상의 중년층이 노후를 위해 평균 2.4종류의 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으며 개인저축이나 연금, 증권이나 주식, 부동산 임대수입들의 순이다. 노후의 선호 주거유형은 도시 근교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저층아파트로서 20평에서 30평 미만의 규모를 선

호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나 원룸주택에 대한 선호는 아직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중년층의 노후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살기좋은 노후 주거를 위해 계속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중년층이 노후에 자녀로 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은 확고하여 노인 단독 가구의 주택과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및 노인촌이나 유료노인홈 등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2. 주택의 특성

주택의 특성 중 신체적 편안함을 도모해 주는 특성들에 대한 선호가 크고 소득과 학력이 높은 층과 전문직의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거실, 안방과 DK, 부부침실, 손님방등이 중요 공간이 될 것이며 전문직계층이 공간의 가변화, 원룸주택 등에 더 선호 경향을 보인다. 주택의 각 집단 별 선호 특성에 대한 계속적 연구로 이들에 대한 주거환경 대비가 요구된다.

3. 지역사회 특성 및 시설

선호하는 지역사회 특성은 의료시설, 대중교통의 발달, 조망이 좋은 곳과 개인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는 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 시설도 생활편의 시설과 여가시설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과 소득이 높은 층이 지역사회 특성의 경제적인 측면 보다 생활의 편리함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지역사회 특성들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이들의 노후 미래의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요구 사항들은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될 것이 예측된다. 아직은 노후에 재고용이나 사회봉사등 적극적 노후를 위한 지역특성 보다 휴양의 의미를 지닌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시 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앞으로 노인의 삶은 현재 보다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변화 할

것이 예측 된다. 주거 환경 계획시에도 각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아직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으로 각 사회계층 별 변화 추이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고성룡(1990), 노인을 위한 공동 주택 주거 환경 계획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대한 주택공사(1993), 미래주택 2000
- 3) 박태환(1990),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 계획주거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 양재룡(1982), "노인 주거의 적정 규모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6권 109호.
- 5) 차미란 (1984), 노인촌의 계획 및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한국 사회 보건원(1990),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 7) Altman, I., Lawton, M. P, and Wholwill, J. F.(1984),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 Plenum Press.
- 8) Green, I.(1975), Housing for the Elderly : The Development & Design Process, Van Nostrand & Reinhold Co.
- 9) Malrouy Y. L., & Brandt J. A.(1992), Non-metropolitan Retirement Location : Preferred Community Characteristics, Housing & Society, v19(3)
- 10) Pitts, H.M.(1986),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Elderly, Family Economics Review, 3, 1-7.
- 11) Poglianich, A.(1988), Life Care Communities : Evaluating a Promising Retirement Alternation, J. of the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 v9(1), 24-34
- 12) Virginia W. J., & Joye J. D.(1990), The Importance of Retirement Community Characteristics: Viewpoint of a Maturing Population, Housing & Society, v17(2)